

3. 지문독해 기본 도구 정리

이번 챕터에서 우리는 수능 국어 지문을 독해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를 배워볼 것입니다. 뭔가 '기본 도구'라고 하면 상당히 거창해 보이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도구들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파트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연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해 나갈 1년 간의 수능 국어 공부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파트이니, 꼭 집중해서 읽고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확인하기
2. 재진술
3. 사례 - 원리 연결
4. 고정값
5. 화제 잡기

이런 기본 도구 외에도 더 많은 스킬, 방법론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의 지향점은 결국 이 기본 도구들을 정확히,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배우는 것들만 완벽히 체화할 수 있다면, 수능 국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물론 기본 도구가 완벽히 내 머리에, 눈에, 몸에 익숙해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요. 하지만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그걸 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니까요! 거기에 더해 이 책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테니, 걱정 말고 내 눈 앞의 텍스트에만 집중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① 정의 확인하기

수능 국어의 특징은 지문 내에 서술된 내용으로만 문제의 답이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배경지식을 제외하면 여러분이 문제풀이에 사용하셔야 할 개념은 모두 지문 내에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문제를 오류없이, 정확히 풀어내기 위해서는 지문에 제시된 개념들의 '정의'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다른 독해 태도를 올바르게 정립하더라도 지문에 정의된 개념들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지문독해는 알맹이 없는 껍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평가원이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을 '일반적인 정의', '수식된 정의'로 나누어 배워볼 겁니다. 먼저,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봅시다.

일반적인 정의

개념을 먼저 제시한 후에 설명을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란 B이다.', 'A은(는) B이다.' 등과 같은 일반적인 정의 제시 방식을 통해 지문의 개념을 정의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념이 먼저 제시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A에 대해 설명하겠구나!'하고 A를 이해해야겠다는 '목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뒤에서 배울 '수식된 정의'의 방식으로 정의가 제시되는 경우보다 쉽게 독해가 가능한 것이죠.

이제 예시를 통해 '일반적인 정의'의 방식으로 '정의를 서술하는 문장'을 공부해봅시다.

'텍스트'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한 모든 인공물을 이르는 용어이다. 쇼윈도는 '소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공간 텍스트이다.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 '텍스트'라는 개념에 대해 정의해준 후 '쇼윈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의 정의부터 살펴봅시다. 'A는 B이다.'라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A가 B라는 점에 집중해서 문장을 읽어줘야 합니다. 만약 정의가 길어서 파악이 힘들 경우, 주어(S)와 서술어(V)에 초점을 맞춰서 독해하면 한결 쉬워집니다. 그 후 각종 관형어나 부사어 같은 수식을 챙겨주면 되는 것이죠. 만약 '텍스트'의 정의를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래 서술된 사고 과정을 따라서 이해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 텍스트(S)는 인공물이다.(V) → 어떤 인공물이지? → 인공물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된 거구나.
→ 아! 그러니까 텍스트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한 인공물이네.

→ 이제 '쇼윈도'가 무엇인지 이해해 봅시다. 쇼윈도는 일종의 공간 '텍스트'라고 합니다. 쇼윈도의 정의에 우리가 위에서 이해했던 '텍스트'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평가원은 앞에서 정의해줬던 개념이 등장할 경우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지문의 앞 부분에서 정의해주는 개념은 정확히 숙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텍스트'라는 개념을 숙지했기 때문에 '쇼윈도'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쇼윈도'가 '공간 텍스트'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쇼윈도는 '공간과 관련된 인공물'일 것이고, 그 '쇼윈도'라는 '텍스트'의 목적은 문장에 써 있는 '소비 행위'일 것입니다.

→ 이렇게 평가원 지문의 개념들은 서로 엮이고 부딪히며 한층 고차원적인 개념을 형성합니다. 그 개념들의 관계를 선지로 물어보면 어려운 내용 일치 문제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장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평가원이 정의해주는 개념을 무시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문장들도 살펴봅시다!

맥놀이란 진동수가 약간 다른 두 개의 소리가 간섭을 일으켜 소리가 주기적으로 세어졌다 약해졌다 하는 현상이다.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 '맥놀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장의 정의를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다면, S와 V부터 찾아보도록 합시다. 스스로 먼저 해보고 아래 서술된 저의 사고 과정과 여러분의 사고 과정을 비교해봅시다! 항상 먼저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 맥놀이란(S) 현상이다.(V) → 무슨 현상이지? → 소리가 주기적으로 세어졌다 약해졌다 하는 현상이구나. → 소리가 세어졌다 약해졌다 하는 이유는 진동수가 다른 두 소리가 간섭을 일으켜서구나.

→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것은 맥놀이라는 개념이 소리가 세어졌다 약해졌다 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 '두 개의 소리의 간섭'은 '맥놀이'의 정의가 아니라 맥놀이의 '원인'이니깐요. 물론 정의를 체크하는 과정이 익숙해지고 복잡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갖게되면 '원인'과 같은 다른 정보들도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스스로 '생각'하며 교재의 내용을 성실히 따라온다면 여러분도 금방 가능해지실 것입니다!

(해설 p.032)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가 정합설이다.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합적이다’는 무슨 의미인가? 정합적이라는 것은 명제들 간의 특별한 관계인데,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통적으로는 ‘모순 없음’과 ‘함축’, 그리고 최근에는 ‘설명적 연관’ 등으로 정의해 왔다.

먼저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경우,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고, 모순이 있으면 정합적이지 않다. 여기서 모순이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와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처럼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명제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따르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추가되는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앞의 명제와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합적이고, 정합적이기 때문에 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앞의 예에서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명제들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정합적이고 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함축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은주는 여자이다.”는 반드시 참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이른다.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라는 의미이다.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명제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이와 무관한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모순이 없다고 해도 정합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은주는 학생이다.”는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에 의해 함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과도하게 제한된다. 그래서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명제 “민수는 운동 신경이 좋다.”는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는 명제를 함축하지는 않지만, 민수가 농구를 잘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준다. 그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두 경우 각각 설명의 대상이 되는 명제와 설명해주는 명제 사이에는 서로 설명적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설명적 연관이 있는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그 중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다른 하나도 참이다. 설

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이다’를 정의하게 되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면, 함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의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적 연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연관의 긴밀도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최근 연구는 확률 이론을 활용하여 정합설을 발전시키고 있다.

0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정합설에서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제들 간의 관계이다.
- ② 정합설에서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어떤 새로운 명제가 정합적이면, 그 새로운 명제도 참이다.
- ③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닌 명제는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에도 참이 아니다.
- ④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들일 수는 있지만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
- 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연관의 긴밀도 문제 때문에 정합설은 아직 한계가 있다.

02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다.—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
- ② 민수는 농구를 좋아한다.—민수는 농구보다 축구를 좋아한다.
- ③ 그것은 민수에게 이익이다.—그것은 민수에게 손해이다.
- ④ 오늘은 화요일이 아니다.—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다.
- ⑤ 민수의 말이 옳다.—은주의 말이 틀리다.

03 <보기>의 명제를 참이라고 할 때, 뒷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

- ①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②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③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예비 전력의 부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④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 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04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받아들인
- ② ㉡: 일어나지
- ③ ㉢: 밝혀내기
- ④ ㉣: 지나치게
- ⑤ ㉤: 아우를

1. 화제 중심으로 읽기

P step에서 배웠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논리적'인 글을 쓰는 평가원의 출제 원칙에 따라, 하나의 지문에는 하나의 화제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 화제에 맞춰서 지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 그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흔히들 독해를 '길찾기'의 과정에 많이 비유합니다. 특히 정보량이 많은 지문들을 읽을 때는 길이 꼬불꼬불하고 갈림길도 많은 미로를 탈출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은 끊임없이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지, 나아가 그 정보는 왜 나왔는지 그 '역할'을 생각하며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역할'은 결국 '화제를 뒷받침하기 위해'라는 답으로 귀결될 겁니다. 이처럼 정보가 쏟아지는 느낌이 들 때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해주시면, '화제'를 다시금 떠올리며 지문의 흐름을 잡을 수 있고, 위에서 이야기한 '길찾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번 파트에선 이런 '길찾기'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것입니다. P step과 I step에서 배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하나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읽고 있지?', '내가 읽고 있는 이 정보는 왜 나온 거지?', '이게 화제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번에도 가볍게 예를 들어 볼까요?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따라서 콰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I step에서 풀어봤던, 2017학년도 수능 '콰인&포퍼' 지문의 3문단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순환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수

능에서 이 지문을 처음 보는 경우 보통 저 '순환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해설지에서 자세하게 '납득'을 시켜드렸죠?) 저 부분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다가 화제의 흐름,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되고 결국 이 지문의 독해를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정보, 뭔가 튀는 정보가 나오는 경우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정보의 역할'을 생각해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정보가 '지문의 흐름' 속에서 도대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 이 지문은 제가 밑줄 친 부분처럼 '연결 고리'를 살려두고 있었습니다. 밑줄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 저 '순환론' 부분은 '콰인은 분석 명제가 없으며, 따라서 논리실증주의자&포퍼의 주장과 다르게 지식은 구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을 설명한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역할'을 생각하고 가면 굳이 저 순환론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포퍼vs콰인'이라는 지문의 흐름을 꼭 잡은 채로 읽어줄 수 있는 겁니다. '길찾기'에 성공한 것이죠! 나아가 이들은 '콰인과 포퍼의 비교'라는 화제와 직결되는 정보이기에, 비록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는 못해도 지문의 흐름상 중요한 정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밑줄 친 부분이 '연결 고리'가 되어 '순환론'이라는 정보의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연결 고리'가 생략되어 우리의 독해를 어렵게 하는, '불친절한' 지문들도 최근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선 다음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3. 2021학년도 수능

가장 최근의 수능, 2021학년도 수능입니다. 올해와 문제 수는 다르지만, 묻는 내용은 똑같으니 집중해서 풀어봅시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35분을 재보도록 합시다! 딱 3지문입니다. 나름대로 시간 배분을 하면서 확실하게 풀어보세요. 난이도는 굳이 언급하지 않을게요. 이미 풀어봤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해결해봅시다.

먼저 35분을 재고 풀어 주시고, (만약 시간이 오버된다면 꼭 풀이를 멈춰 주세요. 본인이 어디까지 풀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점을 해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한 뒤 그 전까지 한 것처럼 충분한 시간을 통해 분석을 해 봅시다. 꼭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분석해야 해요! 직전 시험만큼 분석의 중요도가 높은 지문들은 없으니까요.

또한 문제를 다 풀어보신 뒤에는 오른쪽의 '자가 점검' 페이지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국어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가 점검

결린 시간: 분 / 35분

맞은 개수

[16~21]:

[26~30]:

[34~37]:

틀린 이유 & 어려웠던 점

[16~21]:

[26~30]:

[34~37]:

- 화제를 생각하며 글을 읽었는가?

- 개념의 정의를 확실하게 체크하며 글을 읽었는가?

- 각 글의 구조를 생각하며 글을 읽었는가?

- 판단하기 힘든 선지가 있을 때 '필연적 문제풀이'라는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했는가?

- 제재별 독해 태도를 생각하며 글을 읽었는가?

- 기타 스스로 정한 행동 양식들을 제대로 지키며 문제를 풀었는가?

2. 비교/대조

[1-4] 2015.06B [21~24] ☆☆☆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가 정합설이다.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합적이다'는 무슨 의미인가? 정합적이라는 것은 명제들 간의 특별한 관계인데,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통적으로는 '모순 없음'과 '함축', 그리고 최근에는 '설명적 연관' 등으로 정의해 왔다.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정합설'을 제시하고 있네요. 단순히 '정합설'에 동그라미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명제의 참'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해요! 그런데 '정합적이다'의 의미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대답을 해주지 않고, '전통적' 관점인 '모순 없음'과 '함축', 그리고 '최근'의 관점인 '설명적 연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관점이 화제인 '정합적이다'의 의미를 설명할 것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이 생각을 하면서 꼭 읽어봅시다.

| 하이라이트 문장 |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통적으로는 '모순 없음'과 '함축', 그리고 최근에는 '설명적 연관' 등으로 정의해 왔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카테고리를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정합적이다'라는 화제가 '모순 없음', '함축', '설명적 연관' 순서대로 전개 되겠네요. 이렇게 화제가 전개되는 방식을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미리 예측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경우,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고, 모순이 있으면 정합적이지 않다. 여기서 모순이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와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처럼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명제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따르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추가되는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앞의 명제와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합적이고, 정합적이기 때문에 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앞의 예에서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명제들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정합적이고 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먼저 '정합적이다'의 의미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말 그대로 추가된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라는 건데, '모순'이 뭘까요? 바로 '누나' 예시를 통해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경우 '은주'가 '누나'이면서 '학생'이거나 '누나'가 아니면서 '학생'이 아닌 경우(동시에 참, 동시에 거짓)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순이 아니고, 따라서 추가되는 명제는 '정합적'이라고 하는 것이네요. 예시를 자세히 들어주고 있으니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누나'와 '학생' 같은 건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명제들인데 '모순'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정합적이고 참이 된다는 게 그 문제라고 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개념이 나오겠죠? 클리셰 범벅인 영화를 보듯이, 지문 내용이 너무 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 하이라이트 문장 |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따르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추가되는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앞의 명제와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합적이고, 정합적이기 때문에 참이다.

화제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정합적'인 것과 '명제의 참'의 연관성이 화제였습니다. 따라서 '모순 없음'을 '정합적'인 것으로 정의해줬으니 모순이 없으면, 즉 '정합적'이면 '명제의 참'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줘야 합니다. 이 문장이 친절하게 '예시'를 이용해서 설명해주고 있으니,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고, 정합적이면 참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함축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은주는 여자이다.”는 반드시 참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이룬다.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라는 의미이다.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명제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이와 무관한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모순이 없다고 해도 정합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은주는 학생이다.”는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에 의해 함축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보는 것이 해결책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은주’의 예시와 정의를 토대로 ‘함축’이 무엇인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순 없음’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였던 ‘누나’와 ‘학생’의 관계는 정합적이지 않게 되겠네요. ‘누나’라고 해서 반드시 ‘학생’인 것은 아니니까요.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축’으로 정의하는 것이 ‘모순 없음’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잡아 주셔야 해요! 모든 정보들은 특정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 하이라이트 문장 |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라는 의미이다.

앞 문단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정합적’이라는 것을 ‘함축’으로 이해했기에, ‘함축’과 ‘참’의 연관성을 따져야 합니다. 정합적인 것이 무엇인지, 정합적이면 명제의 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며 읽고 있으니까요! 화제를 잊으면 안 돼요.

| 생각 심화 |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이와 무관한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모순이 없다고 해도 정합적이지 않다.〉는 지문의 문장을 읽을 때 ‘정의’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바로 다음 문장에 ‘왜냐하면’과 함께 부연설명이 있지만, 최근 기출로 갈수록 이런 부연이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지문에서 따로 부연을 해주지 않더라도 ‘함축’의 정의를 ‘예시’에 직접 대입해가며 스스로 이해해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 ‘함축’이므로, 이를 예시에 적용해서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A이고, “은주는 학생이다.”는 B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은주가 민수의 누나인 것이 참이라도, 은주가 학생이라는 게 반드시 참은 아니니까 함축이 아니고, 정합적이지 않네~’하고 스스로 납득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설지에 없는 생각이더라도 능동적인 사고를 하면서 공부해봅시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과도하게 제한된다. 그래서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명제 “민수는 운동 신경이 좋다.”는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는 명제를 함축하지는 않지만, 민수가 농구를 잘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준다. 그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두 경우 각각 설명의 대상이 되는 명제와 설명해 주는 명제 사이에는 서로 설명적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설명적 연관이 있는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그 중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다른 하나도 참이다. 설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이다’를 정의하게 되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면, 함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의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런데 ‘함축’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이죠! ‘모순 없음’으로 정의할 때 생겼던 문제와 연결 지어서 이해하고 가주세요! 합니다.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으면 충분히 떠올릴 수 있어요. ‘모순 없음’은 이것저것 죄다 참으로 인정해서 문제였는데, ‘함축’이 되면 반대로 참으로 인정되는 명제가 너무 적어지는 게 문제인거죠. ‘함축’의 조건을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설명적 연관’이라는 ‘최근’의 관점을 가져 오기도 하네요. ‘농구’ 예시를 통해 ‘그렇듯하게 설명’이라는 ‘설명적 연관’의 정의를 이해해주시고, 이것이 ‘함축’으로 ‘정합적이다’를 정의할 때보다 더 많은 수의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잡아주시면 훌륭하겠습니다.

| 하이라이트 문장 |

설명적 연관이 있는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그 중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다른 하나도 참이다.

앞의 하이라이트 문장들과 같은 층위의 문장입니다. 정합적인 것과 명제의 참과의 연관성! 화제는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 계속 의식적으로 인식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설명적 연관’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확실히 체크하는 건 너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 생각 심화 |

세 가지 개념의 비교 포인트가 '참으로 추가되는 명제의 수'로 잡혀야 합니다. '모순 없음'이 가장 많은 명제를, '함축'이 가장 적은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고 '설명적 연관'이 그 중간 즈음에 있다는 걸 체크해야 한다는 거죠. 이 지문의 화제가 결국 '참이 되는 명제의 조건'이고, 그 큰 틀에서 차이점이 파생된다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이예요. '이게 왜 생각 심화에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설명적 연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연관의 긴밀도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최근 연구는 확률 이론을 활용하여 정합설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런데 '설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이다'를 정의하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지문에서도 명확하게 정의해주지 않은 것처럼, '설명적 연관'의 진정한 정의와 측정 방법 등이 애매하다는 것이죠. 이는 '확률 이론' 같은 것으로 해결한다고는 하지만, 자세히 나오지 않으니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세 개념 사이의 '비교 포인트'인 '참으로 추가되는 명제의 수'라는 포인트만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됩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01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8%	26%	58%	5%

①② '정합설'이라는 화제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었는지 생각하면 쉽게 지울 수 있죠? 이는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나온 개념이었어요.

③④ 세 가지 개념의 비교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고 있는지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추가되는 명제의 수'를 기준으로 비교되고 있어요. '모순 없음'과 '함축'의 문제도 이 부분에서 나왔구요. 이에 따르면 '함축→설명적 연관→모순 없음'의 순서대로 참

으로 추가되는 명제의 수가 많아진다는 걸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두 선지를 모두 처리할 수 있겠죠? 엄청 많은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는 '모순 없음'에서도 참이 아니면 참으로 추가되는 명제가 엄청 적은 '함축'에서는 당연히 참이 될 수 없을 것이고, 기준이 까다로운 '함축'으로도 참이 되는 명제면 '모순 없음'으로는 당연히 참이 되겠죠.

나아가 '함축'의 정의와 '모순 없음'의 정의를 따지면 조금 더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겠네요. '하나가 참일 때 나머지 하나도 반드시 참'이 되는 관계라면, 당연히 모순이 없을 테니까요. 조금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지만 결국 '비교 포인트 인식'과 '정의 체크'라는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 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 생각 심화 |

이런 문제를 풀 때, '예시'를 활용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지문에서 제시한 예시가 문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문제 오류일 테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③번 문제를 풀 때,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모순인 명제를 함축으로 이해해보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지문에 서술된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와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를 함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명제 중 하나가 참이라고 해서 나머지 하나가 반드시 참인 관계가 아니니, 함축으로 이해해도 참이 아니죠?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지문의 예시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태도입니다. 킬러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예시를 활용하면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연습해보면 좋겠죠?

⑤ '설명적 연관'이 가진 문제점을 잘 설명하고 있죠?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지워내야 합니다.

02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8%	4%	20%	5%	3%

- ㉞의 사례, 즉 '모순'의 사례를 찾으라고 합니다. ㉟ 자체가 정의니까, 이에 부합하는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핵심은 '동시에 참'과 '동시에 거짓'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둘을 기준으로 판단해봅시다.

① 동시에 참 : 민수가 은주보다 키가 크면서, 민수가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은 경우 (불가능) / 동시에 거짓 : 민수가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으면서, 민수가 은주보다 키가 큰 경우 (불가능) → '동시에 참'과 '동시에 거짓'이 불가능하네요. 키가 크면서 크지 않다는 건 말이 되지 않으니깐요. '모순'의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하죠? 바로 정답이네요.

② 동시에 참 : 민수가 농구를 좋아하면서, 민수가 농구보다 축구를 좋아하는 경우 (가능) / 동시에 거짓 : 민수가 농구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민수가 농구보다 축구를 더 좋아하지 않는 경우 (가능)
→ 스포츠는 하나만 좋아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가능한 상황들이죠? '동시에 참'과 '동시에 거짓'이 가능하니 '모순'의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③ 동시에 참 : 그것은 민수에게 이익이면서, 그것은 민수에게 손해인 경우 (?) / 동시에 거짓 : 그것은 민수에게 이익이 아니면서, 그것은 민수에게 손해가 아닌 경우 (가능) → 일단 '본전'이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동시에 거짓'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순'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정의' 체크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선지네요. 대부분 '동시에 거짓'을 생각하지 못해서 틀렸을 거예요.

다만 '동시에 참'인 경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데, 하나는 '이익'과 '손해'는 어찌 되었든 반의어이므로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고, 따라서 '동시에 참'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익'이면서 '손해'인 일은 우리네 인생에 참으로 많습니다. 당장 여러분이 이 교재를 보고 있는 행위 자체는 '국어 실력'의 측면에선 '이익'이겠지만, '시간과 에너지'의 측면에선 '손해'가 되겠죠. 즉, '국어 실력'이든 '시간과 에너지'이든 하나의 측면에서만 보면 '이익'이면서 '손해'일 수는 없겠지만, 같은 행위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이익'이면서 '손해'일 수도 있겠죠.

평가원의 출제 의도는 당연히 전자일 것이고, 논리학적으로도 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러한 접근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모순'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제대로 체크했어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④⑤ 역시 위처럼 '동시에 참'인 상황과 '동시에 거짓'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모순'의 개념은 워낙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니 배경지식처럼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합시다.

03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0%	3%	5%	16%	66%

-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라는 내용이 '참'이라고 합니다. 이 지문의 화제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세 개념을 통해 '정합적인 명제', 즉 '참인 명제'가 무엇인지 따져보겠죠? 기대하면서 선지 확인해봅시다.

①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는 경우 '동시에 참'과 '동시에 거짓'이 되기만 하면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지만 솔숲이 있는 상황, 혹은 정전되지 않았지만 솔숲이

없는 상황 모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니,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를 충분히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겠네요.

② 이번엔 '함축'으로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는 전제하에 '반드시 참'이어야 해요. '우리 집'은 '우리 동네'에 포함되어 있으니 '우리 동네'가 정전되었다면 '우리 집'도 반드시 정전되었겠네요. 충분히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③ 이번엔 '설명적 연관'입니다. 위의 '운동 신경'과 '농구' 예시를 통해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렇듯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비 전력의 부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경우는 '정전'이라는 상황을 그렇듯하게 설명해주네요. 충분히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겠어요.

④ '함축'으로 이해하면 '반드시 참'이 되어야 해요!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고 해서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죠? 그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겠네요. 당시에 '추가할 수 없다'를 자기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다'로 읽어 놓고 틀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던 문제였습니다. '선지에서 묻는 것'을 생각하는 태도를 꼭 갖추도록 합시다.

⑤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는 건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는 내용을 그렇듯하게 설명해주네요. 그럼 '참인 명제'로 충분히 추가할 수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 애가 답이었습시다. 어렵지 않죠?

| 생각 심화 |

5번 선지의 해설이 사실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만 정전되고 우리 동네의 다른 집은 정전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고, 마지막 문단에서 말한 것처럼 '설명적 연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했던 '비교 포인트'를 가져오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문제에 등장한 세 가지 명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봅시다.

- 1)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
- 2)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
- 3) 예비 전력의 부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지문에 나온 세 가지 개념으로 '정합적이다'를 정의할 경우, 해당 명제가 참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모순 없음'으로 정의 : 1), 2), 3) 모두 참
- * '함축'으로 정의 : 2)만 참
- *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 : 2), 3)만 참

이는 각 개념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참으로 추가할 수 있는 명제의 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구조라는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함축'은 '모순 없음'이 명제를 너무 많이 참으로 추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적 연관'은 '함축'이 명제를 너무 적게 참으로 추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요. 이에 따르면 '함축'으로 정의했을 때 참이 되는 2)는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할 경우에도 참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함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봐야 5번 선지가 정확하게 지워질 것입니다. 평가원이 묻고자 한 부분이 이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비교 포인트'라는 식상하고 또 식상한 내용인니까요.

나아가 4번 선지도 이 내용을 가지고 정확히 지울 수 있습니다. 명제 1)은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했을 때 참이 되므로, '함축'으로 정의했을 때는 참이 될 수 없겠죠. 이들의 문제해결 구조에 따라서 말이에요.

이 내용이 논리학적 배경지식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비교/대조형 지문에서 항상 물어보는 '비교 포인트'를 활용한 해설임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아가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도요!

답을 고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생각할 건덕지가 꽤 많은 지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답만 맞히고 넘어가지 말고 '해야 할 생각'들을 모두 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04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3%	85%	2%	6%

| 핵심 point |

- ① 화제 check : 비문학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사례-원리 연결 : 모든 사례는 어떠한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독해 속도를 늦추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 ③ 비교/대조 : 차이점은 반드시 '공통점'으로부터 파생됩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가)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 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과거제'에 대한 지문이네요. 정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내용이 '능력주의'라는 말로 정리가 되네요. '시험 성적'이 중요하다는 것 역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뜻이니까요. '과거제'의 장점을 계속 열거하는 식으로 지문이 전개될까요? 계속 읽어봅시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시험 과정에서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 준다.

이러한 과거제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개방성' 및 '사회적 유동성' 등도 증대시켰다고 합니다. '익명성의 확보'라는 생소한 용어도 '공정성'과 엮어 주시면 되겠죠? '능력주의' 외에도 '공정성'이라는 말로 모든 정보를 모아 주셔야 합니다. '개방성 제고'도, '사회적 유동성 증대'도, '익명성 확보'도 결국 다 똑같은 말이에요.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추가 되는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 냈다. 또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방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경쟁적 선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